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19일

202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 코로나시대의 친환경 생태교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 O N T E N T S

# 차 례

인 사 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u>03</u>
주 제 글	Why 생태교육?	<u>04</u>
설 교	회복을 위한 결단	<u>07</u>
예 배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	<u>10</u>
교육자료1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이 필요해	<u>13</u>
교육자료2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삶' 교육	<u>17</u>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깊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어 봅니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주제를 “친환경 생태교육”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더 빨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극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연기과 안개로 가득 찬 회색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공적인 것이 더 친숙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다와 냇가, 들판에서 해엄을 치거나 뛰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자연 속에서 여유와 기쁨, 자유와 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과 그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은 함께 보호하고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구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생태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여유와 평화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좀 더 자연과 친숙하도록 돕는 생태활동을 통해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올해의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자녀들을 보내주시시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창조 세상이 가꾸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감독회장  
인사말

1

##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

이 철 감독회장

# Why 생태교육?

▣ 박미경 교수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 양광교회)

얼마 전, 정부가 일본산 어류를 수입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2020년 11월 여의도에서 시위를 했던 양식업자들이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땅에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위반이 이유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접했었지만, 어류를 학대했다는 이유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생태 감수성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ecology)이란 용어는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프리츠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53-57을 최창국, 216에서 재인용). 문자적으로는 오이코스(oikos, 집)라는 단어와 로고스(logos, 학문)의 복합어로서 “집을 위한 학문” 또는 “삶의 공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이란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는 학문이요 우주 생태계를

하나의 집으로 보았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집의 개념이 우주로 확대된 것이지요.

미국의 문화역사학자인 린 화이트(Lynn White)는 1966년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생태환경 위기의 책임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함부로 착취하고 파괴하는 사상적 기초를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이 제공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화이트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생태학이란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연결되는 생태계는 기독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

인간도 동물이지만,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자신을 차별하여 영장류라고 부르며 동물이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양 착각해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해석한 인간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살핌’이 아닌 ‘착취와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구 생태계에서 척추동물의 종류만 해도 4만 종이 넘습니다. 모든 생물의 종류는 심지어 6천만에서 1억 종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물이 생명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생태계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19 역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일어난 방어적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우주 생태계의 돌봄을 맡은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어(David W. Orr)는 그의 저서 『생태 리터러시(1992)』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하여 ‘생태리터러시(ecological literacy)’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교육을 통해 이를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어에 따르면,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류는 지구가족 개념의 생태교육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주 생태계라는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역시 인간 중심의 편협한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지구 착취의 정당화에 자연환경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비판하고, 지구와 우주에 대하여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를 재인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를 인식하고,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인간과 함께 보호하고 공존해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지구환경의 회복과 평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모든 생물의 샬롬(shalom), 다시 말해 인간이 모든 관계에 있어 평화를 누리는 상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월터 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및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우주 생태계 중심으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샬롬은 바로 우주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다른 모든 생물의 평화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며, 미국의 여성신학자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euther)는 우리의 감수성이 변해야 함을 강력히 주

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한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종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생태운동의 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환경의 날 주제로 선언하며 지속적으로 생태계 보호와 보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다음 봉우리를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겔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개역개정)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새

로운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 나온 물이 성전을 돌아 흘러가며 물이 불어나더니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창조 세계 모두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세계를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는 생태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새롭게 변화되고, 지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생태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배와 교육,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 회복을 위한 결단

허 영 목사 (신인교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지난 7월의 어느 주일에 과수원 하시는 권사님이 예배시간 전 좀 이른 시간에 차량 운행을 부탁하셔서 된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가보았습니다. 복숭아 몇 상자와 비닐봉지 묶음이 있어서 - 대충 짐작은 갔지만 - 여쭙봤더니 올해 복숭아 농사가 잘 안되어 교우들하고 나누어 먹으려 한다며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계셨습니다. 유례없던 무더위와 가뭄으로 복숭아 생장이 좋지 않아 상품성이 없어서 팔 수는 없는데 이게 또 맛은 좋아서 이참에 교우들 전체와 나누려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사실 권사님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봄철 이상 저온으로 배꽃이 다 떨어지는 냉해 피해를 입었고 살아남은 것들도 껍질에 반점들이 생겨서 상품으로 내다 팔 수 없게 되자 가을에 교우들과 배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작년에 배도 그렇고 이번 복숭아도 그렇고 맛있게 감사하게 먹기는 했지만 교우들 모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노구에 얼마나 힘들게 농사짓는지 알기에, 괜찮다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는 농촌지역에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경험들이, 방법들이 어느 순간부터 잘 맞지 않게 되어 파종 시기와 경작

시기가 변하고, 키우던 작물의 종류도 바뀌어야 했으며 하던 일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때를 따라 내리던 비와 때를 따라 변하던 날씨가 시도 때도 따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기후는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 배우기를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확연히 구분되어 가수 김현식은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겨울이면 아이들의 눈 장난. 아름다운 우리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노래를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기후의 대표적 특징이었던 뚜렷한 사계절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전에 지나가버리기 일쑤입니다. 그에 따라 여름과 겨울이 유독 길어진 것도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입니다.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매서운 한겨울의 혹한과 한여름의 혹서 피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일상을 흔들여 놓는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주제가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증가된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의 열을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마치 온실처럼 대기권 안에 머물며 지구 전체를 덥게 만드는 것이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열병에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듯, 지구 역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기존 에너지 정책이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와 가뭄, 쓰나미, 기근 등을 포함하는 재난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의 만연, 멸종, 환경 난민, 전쟁, 인류 문명의 종언 등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미 확인된 생태적 변화로는 빙하의 감소, 영구 동토층의 해빙, 강과 호수가 늦게 얼고 일찍 녹고, 중위도 지방에서 농작물의 성장 기간이 길어지며, 동식물의 분포대가 극지와 고지대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식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수목의 개화 시기가 빨라집니다. 곤충의 돌연변이, 새들의 산란 문제, 빙하는 계속 녹아서 사라지고 그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도 급격하게 상승해 해안의 습지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호초와 열대우림, 대초원과 고산지대의 툰드라, 사막과 강과 바다 등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형태로 생태계가 변형되고, 그 안에 사는 거주자들, 모든 생명들이 이미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지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내 탓’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

계를 이토록 신음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후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된 곳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생명의 터전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 창조질서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광대한 얼음과 눈은 강력한 태양의 열을 반사해 지구의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을 책임져왔고, 시베리아의 툰드라와 북미 대륙의 침엽수림은 그 동토 아래에 파괴적인 메탄가스와 탄소 성분을 안정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브라질의 열대우림과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소비를 담당해 왔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산호초와 염분에 강한 맹그로브 나무들은 대륙붕의 풍요로운 어족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고, 적도 부근의 거대한 초원 지대는 수백만 단위의 대형 초식 동물들이 존재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먹이로 삼아 수량을 관리하는 다양한 육식 동물 개체군과 초식 동물의 배설로 인해 너른 지역에 종자를 퍼트리는 식물군의 공생을 담보했습니다. 지구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먹을 양식을 주고 마실 물과 깨끗한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질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어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질서 안에서 인류를 보호해 주던 지구가 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 이상 지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인류는 아니 모든 생명은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잘 보살피고 돌봄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하여 다음 세대

가 살아갈 건강하고 안전한 터전으로서의 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나는 땅을 짓밟고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위험한 생각이 오늘날 생태적 재앙을 가져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한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김과 돌봄으로 일하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인간은 모든 생명의 지킴이입니다. 생명의 연대성을 깨닫고, 생명 앞에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은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간이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 예측 모델 연구에서 유래된 용어로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변수가 커다란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이 땅과 인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회복하는 한 걸음이 된다면, 이 한 걸음들을 모아서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백 사람의 한 걸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한 걸음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 생태 문제는 에너지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수많



은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창조-생태적 세계관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며,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교회 안에서의 생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생태 문제를 신앙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으로서의 생태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교회학교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교회 교육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 생태는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례자들이며 지구 생태를 잠시 빌려 쓰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결단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

■ 이종명 목사 (송악교회)

## 준비물

영상 (1분 정도로 자연의 모습과 소리가 담긴 것, 예로 새소리나 매미소리, 물 흐르는 소리와 장면이 담긴 영상) 2개를 예배 PPT에 미리 담아 준비한다.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중

## 사전 준비

- ① 한주 전에 교사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주변에 자연 생물(식물) 중 하나씩 택하여 이름과 특징(모양, 느낌, 냄새...)을 알아보고 잎이나 꽃을 따서 예배시간에 가져올 것을 광고한다. 흔하지 않은 것이라면 스마트폰 사진에 담아오도록 한다.
- ② 예배 대형은 강대상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교사를 중심으로 반별로 앉도록 배치한다.
- ③ 예배 전에 강대상 앞에 흰색이나 황토색 부드러운 천을 미리 깔아놓고 그 위에 촛불, 십자가, 헌금함도 함께 준비해 놓는다.

## 예배 순서

예배로의 초대 ..... 인도자

인도자 : 2021년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3회)

마음 열기 ..... 다 같이

인도자 :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흠으로 빚으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생명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천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교

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다 같이**  
 인도자 :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의 친구들 소개와 초대** ..... **다 함께**  
 인도자 : 이 시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난 자연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모두에게 보여주며 이름과 특징을 말하고 강대상 앞에 있는 천 위에 두 손으로 올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말씀 듣기** ..... **다 함께**  
 인도자 :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들, 우리의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 이 : 시편 8편(새번역)을 읽는다.

1.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2.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3.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5.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6.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7. 크고 작은 온갖 짐짐승과 들짐승까지도
8.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9.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자연의 찬양 듣기** ..... **다 같이**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들려주는 찬양을 들겠습니다. 오늘 특별찬양하는 친구는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새로 되지빠귀와 빠꾸기입니다. (또는 여름철에 주로 아침 시간에 집 근처나 밭에 있는 나무에서 짹을 찾아 노래하는 참매미입니다 등의 설명과 함께 약 1분간 새소리나, 매미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

**말씀 나눔** ..... **다 같이**

인도자 : 전도사님(목사님, 혹은 선생님)께서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나 교사 중에서 위 본문으로 말씀을 해설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지 말씀을 전한다.)

**감사의 기도과 봉헌** ..... **다 같이**

인도자 :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복음성가 ‘내가 만약 나비라면’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아가 준비한 예물을 헌금함에 바친다.)

헌금을 마치면 맡은 이가 다음과 같이 봉헌기도를 드린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과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바쳐진 예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데 소중하게 쓰이게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말씀대로 잘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 앞에 있는 모든 자연의 생명과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짐 나누기** ..... **다 함께**

인도자 : 이제 우리의 다짐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다짐입니다.

교 사 :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온 천하와 같이 귀한 생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과 생명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본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어린이(청소년) :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고, 모든 생명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의 찬양** ..... 2019년 성경학교 찬양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 **다 함께**

인도자 :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도(주의 기도)** ..... **목사님**

(가능하다면 참여자들과 참여자들이 가져온 생명(식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한다)

#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이 필요해

■ 김신형 목사 (자연드림교회)

요즘, 코로나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며 자연, 생태, 환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2년 만에 2020년부터 환경교사를 임용하기 시작하여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환경교육이라는 이름보다 기후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환경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하면 실천사항만 나열하기 쉽습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기를 아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생활방식을 바꿔줄 수 있다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환경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1. 생태 감수성 키우기

도시, 아파트, 입시 중심의 생활, 스마트폰은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극적인 매체만을 찾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환경보호를 외쳐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의 힘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아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 보여줘야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연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숲 밖이 아닌 숲속에 들어가면 재미있고 신기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 이후 가장 중요한 물리학자로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공감하는 첫걸음은 바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일입니다.

### 들려줘야 합니다

소리에는 힘(에너지)이 있습니다. 귀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가 머리와 마음을 통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새 소리, 물소리 등 숲의 많은 소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숲의 다양한 생명들이 보내는 신선한 자극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역시 숲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학습이고 경험이 됩니다. 특히, 어릴 적 자연에서의 좋은 추억과 건강한 경험은 성장할수록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을 심어 줄 것입니다.

## 2. 생태영성 키우기

생태 감수성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 영성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전통엔 구원 신앙과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구원 신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즉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생태영성은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통합하는 영성이며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영성입니다. 생태영성은 단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피조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을 지각(知覺)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면, 성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생태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1-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104:24**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에스겔서에서는 자연을 통해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겔 34:25-26**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겔 26: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겔 25: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얹드리지리라

요한복음에서의 성례전은 생태적이었습니다.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빵(real food, NIV)과 포도주(real drink, NIV)라는 자연물, 특히 음식을 통하여 성찬을 베푸셨으며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롬 8:19-20**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롬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생태영성의 시작일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인류만을 위한 배타적인 것이 아닌 만물(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영성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태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뿐만 아니라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에도 적으신다’고 고백했으며 생태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스는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두 종류의 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태영성을 통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3. 정의와 평화의 영성 키우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처해 있지만, 백신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식량난은 가난한 나라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 환경파괴는 선진국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지만 그 피해는 오히려 선진국들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는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며 이기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단지 환경을 지킴으로 인류의 생존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 정의와 평화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의 살림을 이루어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의 환경교육은 계층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 정의, 평화를 통한 창조질서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 교회 환경교육은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두 본문 첫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때’는 바로 구원자가 오실 때입니다. 인류의 생태적 자성과 성찰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살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35:6-7**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제 교회에서의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창조질서 보전에 앞장서는 녹색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참고 |

검색 사이트에서 다음 기관들을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삶' 교육

## 이재하 목사(상장교회)

2020년 1월, 미국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자회를 중심으로 1947년에 처음 만들어진 지구 종말 시계의 현재 시간을 23시 58분 20초로 발표했다. 종말의 시간인 자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세웠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미와 시베리아, 이탈리아, 터키, 북아프리카,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더위와 낮은 습도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단순히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재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다행히 많은 국가들이 이를 기후 위기에서 오는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를 지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이심을 고백하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생태적 회심이 요구되는 때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맡겨주신 이 땅(창1:28)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살아왔고, 그만큼 자연을 낭비하고 훼손하는 일도 쉽게 여겨왔다.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내려오듯,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삶의 방식이 더 불편해져야 습관처럼 낭비하고 훼손하던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작지만 큰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회복시키는 생태 감수성을 키우자! 그리고 환경을 위해 실천되고 있는 방법들을 살피고 실행해보자!

## 1.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양 1.09kg(2019년 1일 기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개개인이 실제로 쓰레기를 줄인 사례를 게시한 뒤 #제로웨이스트챌린

지', '#zerowastechallenge' 등의 해시태그를 붙이면 된다. 자신만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알리거나, 지인을 태그 해 참여하게 하는 릴레이 형식으로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천 방법이 있다.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남은 식재료 활용해 요리하기
- 옷 수선
- 손수건 이용
-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 분리수거 재활용 실천

## 2.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75%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기후 변화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나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화석 연료 및 천연가스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다. 한 명 한 명이 나서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하기 (주 1회, 1년에 469.4kg 감소)
- 채식하기 (주 1회, 1년에 나무 15그루 심는 효과)
- 물 아껴 쓰기
- 전기 아껴 쓰기
- 운전 습관 고치기 (급출발, 급정거 연료 소비 30~50% 늘림)

## 3. 우리 가족 환경신문 만들기

준비물: 이면지, 색종이, 신문, 잡지, 가위, 풀, 필기구, 말린 꽃과 나뭇잎

- ① 52주 또는 12개월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기사를 발굴하는 기자가 되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고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편집한다.
- ② 발간한 환경신문을 가까운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③ 가장 많은 취재 기사를 발굴한 구성원에게 달란트를 주고, 연말에 시상한다.
- ④ 매월 환경 이벤트를 진행한다.
  - 24절기 소개하기 (문화, 풍습, 놀이, 행사)
  - 4월 식목일에 가족 이름으로 나무 심기(환경보호 결단식)
  - 가족 경조사 기념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 환경 관련 책, 다큐 소개하기

- 환경 이슈 소개
- 환경 단체 소개

#### 4. 가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노하우 꿀팁 발굴하기

- ① 잘 아껴 쓰는 곳에 그린 스티커, 독려할 곳에는 레드 스티커 부착하기
- ②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루 정한 시간에 30분간 핸드폰 끄기.
- ③ 에너지 절약 시 달란트 지급 (매월 또는 연말 시상)
- ④ 주변에 낭비되는 전기나 수도를 찾아서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환경 감시, 환경정화)
- ⑤ 기업, 지자체 주관의 환경캠페인 참여하기 (아이쿱생협의 'No플라스틱', 예산군의 '겉쥌')

#### 5.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오늘 하루 습관' 표 활용하기

아래의 표를 온 가족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보세요! (냉장고, 거실 벽, 현관문 등)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지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보면 습관이 되고, 어느새 생태적 감수성이 길러질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분야 중 하나를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고요? 당신의 생태 감수성 인정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생활습관	샤워 10분 줄이기	양치컵 사용	텀블러 휴대	변기 수조 물병 넣기	장바구니 챙기기	분리수거 하기	몸과 마음 안식 하기
이동수단	차량 10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 트렁크 비우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전거 타기	급제동 급출발 안하기	차 없는 주일
업무수행	이메일 비우기	이면지 사용	계단 이동하기	간편한 옷차림	손수건 휴대	전자 청구서 이용하기	주보 재생 종이 사용
여가활동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	여행지 쓰레기 가져오기	기차로 여행하기	하루 만보걷기	해외 보다 국내 여행	배달음식 줄이기	1가족 1화분 가꾸기
유지관리	에어컨 1도 높이기	보일러 1도 줄이기	외출 시 멀티탭 끄기	에너지 1등급 사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생활속 CO2 줄이기	탄소 없는 예배
육아가사	장난감 함께 사용	아나바다 실천하기	과대 포장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천연재료 장난감	세탁 횟수 주1회 줄이기	생태 감수성 기르기
농사	무 제초제	무농약	무화학 비료	생태 순환 농법	쓰레기 소각 금지	로컬 마켓 이용	생명 밥상 운동